



커튼·가구 속 '숨은 사람 몸 찾기'

광주 프랑스문화원 전시·와인 파티·미술 체험 풍성한 문화행사

벽에 걸린 사진엔 가구가 놓인 응접실이 보인다. 박물관이나 고풍스러운 저택을 찍은 듯 엔틱 가구와 대리석으로 장식된 화려한 장소들이다. 작품 속 가구들을 찬찬히 살펴보니 무언가 위화감이 든다. 커튼을 묶은 천이, 사람 필이다.

광주 프랑스문화원(원장 최승은)이 주최하는 줄리앙 스피웍(31)의 '코르 드 스틸(Corps de style)-몸이 입는 가구, 가구가 놓는 몸'전에서 만날 수 있는 사진작품들은 유쾌하다.

프랑스문화원이 전시, 미술 체험, 와인파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했다.

27일까지 열리는 줄리앙 스피웍의 전시에선 발칙함을 느낄 수 있다. 옷이 잔뜩 걸린 옷장 사이에 사람이 서 있거나 소파 위 켜켜이 포개진 쿠션 사이로 사람 무릎이 살짝 드러나게 하는 식이다.

프랑스의 젊은 사진 작가 줄리앙은 2005년부터 몸에 관한 작업을 주로 했다. 햇빛과 조화를 이룬 실내풍경, 가구의 세부적인 클로즈업 등 그의 사진은 얼핏 보면 잡지에 나올 법한 고급 인테리어를 다룬 것 같다.

하지만 가까이서 살펴보면 신체 일부분을 볼 수 있다. 그 신체 일부분들은 가구의 곡선이나 모양과 맞아 떨어진다.

나뭇결에 어울리는 피부의 정맥이나 사슴의 뿔처럼 보이는 손가락들을 통해 작가의 기발한 연출력을 엿볼 수 있다. 그의 작품들은 웃음을 주거나 몸의 곡선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을 전해준다.

커튼을 묶은 팔처럼 쉽게 찾을 수 있는 작품이 있는 반면 구석에 위치한 소파 다리를 대신한 팔 등 찾기 어려운 작품도 있다.

숨겨진 신체를 찾고 있으면 마치 어렸을 적 자주하던 숨은 그림찾기를 하는 기분이다. 어려운 작품을 만났을 때는 꼭 찾아가야겠다는 도전 정신까지 생긴다.

문화원 측은 전시 이외에도 오는 21일 오후 1시30분부터 프랑스 화가 클로드 게나르(Claude Guenard)와 함께하는 '미술 아뜰리에(예술가들의 작업실)'도 개최한다.

클로드 게나르(66)는 화가이자 판화가, 조

27일까지 스피웍 사진전

발칙·기발한 연출 돋보여

21일 '자화상 그리기'

프랑스 로맨스 영화 상영도

각가다. 복싱과 유도대회에 출전한 이력이 있고 아프리카에서 20년간 학생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등 '문화 용병'이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하다.

한국에서는 광고나 잡지, 포스터 디자인 등 일러스트 작품을 선보였다. 참여자들은 클로즈드와 마주 앉아 프랑스 잡지에 자화상을 그려보는 시간을 갖는다. 참가 희망자들은 13일까지 전화 예약을 하면 된다. 참가비는 6000원이다.

또 이날 오후 6시부터는 보졸레 누보 파티가 열린다. 와인을 마시며 음식과 샹송 등을 즐기며 프랑스 문화를 즐기는 자리다. 이날 제공되는 음식은 라따뚜이, 치즈 등으로 프랑스로 전통의 맛을 느낄 수 있다.

문화원 측은 이날 드레스코드로 프랑스 국기색을 지정했다. 파랑, 하양, 빨강 등의 아이템을 멋스럽게 착용한 '베스트 드레서'를 뽑아 책 등 선물을 증정한다. 13일까지 전화 접수를 받으며 참가비는 2만6000원(수강생 2만 2000원)이다.

문화원이 꾸준히 운영하고 있는 '시네 프랑스'도 다양한 영화들을 준비했다. 11~12월의 주제는 '그들이 사랑하는 법-프랑스인들의 러브스토리'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문화원 3층에서 무료상영한다. '사랑은 타이핑 중'(17일), '마지막 지하철'(18일), '타인의 취향'(24일), '퐁네프의 연인들'(25일), '베티블루'(12월1일) 등 프랑스 로맨스 영화의 진수를 만나볼 수 있다.

문의 및 예약 062-527-250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토속민요 접목 전남대표 작품 제작 해외공연...민족음악 세계에 알릴 것”

유장영 신임 전남도립국악단장



한 의지를 표명했다.

“앞으로 제작할 작품은 다른 지역에서는 만들 수 없는, 전남만의 특성이 담겨야합니다. 구상하고 있는 작품 중 하나인 ‘남도 환타지 나비야 청산도 가자’(가제)는 희망, 성장, 이상향 등을 담고 있는 주제를 해양과 관련

전남도립국악단이 내내이면 창단 30주년을 맞는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에 수장을 맡은 유장영 신임 전남도립국악단장(57)의 어깨는 그만큼 무겁다.

“제 마지막 열정을 이곳에서 불사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악단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좋은 작품으로 관객들을 만날 수 있도록 단원들과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작곡을 하고, 대학가요제가 나가 입상도 했던 유 단장은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한 후 전북대 대학원 음악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연제나 음악과 함께였는데 항상 서양 음악에 대한 교육만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악에 대한 고민이 한창 일 때 우리 음악을 한번 공부해보자 싶었고 공부를 하면 할 수록 나에게 ‘맞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88년 전북도립국악단 입단 후 학예연구실장을 거쳐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 단장을 맡은 그는 지역 정서에 맞는 창작 레퍼토리 개발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 창작 시트콤 ‘육이네’, 뮤지컬 ‘춘향’ 등 퓨전 국악 작품을 제작, 눈길을 끌었다.

유 단장은 전남도립국악단의 브랜드 공연에도 강

한 남도의 스토리, 육자배기 등 토속 민요와 결합시킨 작품입니다.”

유단장은 국악단의 해외 공연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악단 해외 공연 예산이 거의 없는 게 아쉽습니다. 현재 세계 민족 음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국악단의 음악적 자원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세계 민족 음악계의 선두에 서는 것,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남 지역 흥보는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국제적 위상도 높아질 겁니다.”

유 단장은 “단원 한사람 한사람이 국악단 발전의 동인이고, 그들이 힘을 모을 때 좋은 작품이 나온다”며 “단원들의 예술적 자부심을 지켜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무위, 새벽을 깨우다”...이제훈 개인전



‘무위자연3’

12~18일 은암미술관

이제훈(55) 작가가 12~18일 은암미술관에서 ‘무위(無爲), 새벽을 깨우다’를 주제로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한국인의 심성과 시각으로 바라본 자연을 그린 작품 30여점을 출품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무위자연’ 시리즈는 지난 2012년 이 작가가 경남 양산 통도사에 1년간 머물며 자연에서 얻은 영감을 소재로 했다. 소나무, 강, 바다, 눈 쌓인 대나무 등을 작품에 등장시켰다. 고즈넉한 분위기 속 새벽 안개에 둘러싸인 소나무 등을 통해 관람자들에게 마음의 안식과 휴식을 제공한다.

구상미술을 다루는 그는 자연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점이 특징이다. 실제 풍경을 화폭에 옮겨 관람객들은 마치 자연을 직접 거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씨는 “세상사를 잊고 통도사에 머물며 느낀 점과 평소 공부하던 씨알사상(사람이 역사와 사회의 바탕이자 주체라고 여기는 사상)을 바탕으로 작품을 그렸다”며 “관람객들이 어렸을 적 거닐었던 산을 추억하듯 작품 속 소나무를 통해 마음의 안식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씨는 개인전을 11회 열었고 약 200회의 단체전에 참가했으며 한국 특별문화공로상을 수상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위원, 범미술인행 동 300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231-5299.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파주부엌 5회연속 선정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시공후

광주전남대리점 1062) 511-0444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